

# 李白<贈>詩 譯解 및 考察(9)

— (제35수에서 제38수까지)

조득창·조성천\*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35수 郭季鷹께 드림
  - 2.2 제36수 鄴中에서 高鳳 石門山에 들어가 은거하기를 권하는  
말이 王氏께 드림
  - 2.3 제37수 華州의 王司土께 드림
  - 2.4 제38수 조정의 부름을 받은 盧氏 형제께 드림
3. 결론

##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散逸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촉본 《이태백문집》은 '古風'59수와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詩, 寄詩, 別詩, 酬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촉본 《이태백문집》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실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각한

\* 협성대학교 중국통상문화학과 교수(주저자, chodc38@nate.com) ·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교신저자, sczhao@hanmail.net)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과의 관계 및 교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래서 ‘贈詩’에 대한 역주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中國語文論叢》, 《中國學論叢》 등에 발표하였다.<sup>1)</sup> 본고는 이백의 ‘贈詩’ 제35수에서 제38수를 역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직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의역을 하였다. 또한 시적인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및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典籍의 원문을 게재하여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제고하였다. 校勘은 詹鍈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국내번역본에 비해 상세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增補하고 또한 새로운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국내 이백 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외에 국내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및 국외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등을 참고하고

1) ‘贈詩’의 역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李白 <贈>詩 譯解(1)>(《中國學論叢》 제48집, 2015. 5. 30.), <李白 <贈>詩 譯解(2)>(《中國語文論叢》 제69집, 2015. 6. 30.), <李白 <贈>詩 譯解(3)>(《中國文化研究》 제29집, 2015. 8. 30.), <李白 <贈>詩 譯解(4)>(《中國學論叢》 제50집, 2015. 11. 30.), <李白 <贈>詩 譯解 및 考察(5)>(《中國學論叢》 제64집, 2019. 6. 30.), <李白 <贈>詩 譯解 및 考察(6)>(《中國學論叢》 제65집, 2019. 9. 30.), <李白 <贈>詩 譯解 및 考察(7)>(《中國語文論叢》 제95집, 2019. 10. 30.), <李白 <贈>詩 譯解 및 考察(8)>(《中國語文論叢》 제98집, 2020. 4. 30.).

검토하여 그 이동을 고찰하였다.

## 2. 본 론

### 2.1 제35수 곽계응(郭季鷹)께 드림(贈郭季鷹)<sup>2)</sup>

|                      |                   |
|----------------------|-------------------|
| 河東郭有道, <sup>3)</sup> | 하동에 곽유도 같은 이 있어   |
| 於世若浮雲.               | 인간 세상을 뜬구름같이 여기네. |
| 盛德無我位, <sup>4)</sup> | 훌륭한 덕 있지만 관직은 없으니 |

2) 郭季鷹: 사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3) 河東: 唐代의 道의 이름으로 河東道の 중심지는 太原이었다. 이에 唐人들은 河東으로 太原을 가리켰다. ○郭有道: 東漢 때의 太原의 郭泰를 말한다. 이 시에서는 郭泰로 郭季鷹을 비유했다. 《後漢書·郭泰傳》에 곽태에 관한 다음 내용이 있다. “郭太는 字가 林宗, 太原介休人이다. 가세가 빈천하였다. …… 司徒인 黃瓊이 관직을 주고, 太常인 趙典이 곽태를 천거하였다. 어떤 사람은 곽태에게 출사하여 벼슬할 것을 권하자, 곽태가 대답하기를, ‘나는 저녁에는 天象을 관찰하고, 낮에는 人事를 고찰하는데, 하늘이 폐하려는 것은 유지될 수 없다’ 하고, 결국 대답하지 않았다. ……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42세였다. 사망의 천여 명이 넘는 선비들이 장례에 왔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비석을 세우는데, 蔡邕이 비문을 지었다. 그가 비문을 다 새기고서, 涿郡의 盧植에게 말하길, ‘내가 많은 비명을 지었지만, 모두 부끄러운 것이 많았는데, 오직 郭林宗은 도있는 선비여서, 이 비문을 새기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郭太, 字林宗, 大原介休人也. 家世貧賤. …… 司徒黃瓊辟, 太常趙典舉有道. 或勸林宗仕進者, 對曰: ‘吾夜觀乾象, 晝察人事, 天之所廢不可支也.’) 遂並不應. …… 卒於家, 時年四十二. 四方之士千餘人, 皆來會葬. 同志者乃共刻石立碑, 蔡邕爲其文, 既而謂涿郡盧植曰: ‘吾爲碑銘多矣, 皆有慚德, 唯郭有道無愧色耳.’)”

4) “盛德無我位”句: 훌륭한 덕이 있으면서 지위가 없음을 말한다. 《中庸》에 “비록 지위는 있으나, 진실로 덕이 없으면 감히 禮樂을 제정하지 못하고, 비록 덕은 있으나 진실로 지위가 없으면 또한 禮樂을 제정하지 못한다(雖有其位, 苟無其德, 不敢作禮樂焉; 雖有其德, 苟無其位, 亦不敢作禮樂焉.)”고 하였다. 《史記·老子韓非列傳》에 “노자가 말했다.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보화를) 창고에 깊이 감추어 두고서 마치 비어 있는 듯이 하고, 군자는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老子曰: ‘吾聞之, 良賈深藏若虛, 君子盛德容貌若愚.’)”라고 하였다. “盛德”을 詹福瑞 등은 ‘盛德之世’로 보았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년, 361쪽). 이 구에 대해, 嚴評本の 明人の 批語에는 “我位를 어떻게 해석할까?(我位何解?)”라고 하였다. ‘我位’에 대해, 각각의 주석가는 주석 없이 祿位로 번역하였다. ‘我’는 郭泰를 말한다. 따라서 ‘無我位’는 곽태가 관직에 뜻을 두지 않음을 말한다.

|                      |                     |
|----------------------|---------------------|
| 清光獨映君. <sup>5)</sup> | 청아한 광채 유독 그대를 비추네.  |
| 恥將雞並食, <sup>6)</sup> | 닭들과 먹이 다름 부끄러워하며    |
| 長與鳳爲群.               | 길이 봉황과 무리되려 하네.     |
| 一擊九千仞,               | 한 번에 구천 길 날아올라      |
| 相期凌紫氛. <sup>7)</sup> | 자색 운기까지 솟아오르자 약속하네. |

<校記>

이 시는 字句의 異同이 없음.

<詳釋>

그대는 하동의 광유도와 같으니, 인간 세상을 변화막측한 뜰구름같이 여긴다. 훌륭한 덕을 지녔지만, 관직이 없으니, 청아한 광채 유독 그대를 빛나게

- 5) “清光獨映君”句: ‘清光’ 즉 盛德의 광휘가 광계웅에게 비추는 뜻을 말한다. 이 구는 광계웅이 광태와 같은 청광 즉 성덕의 광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광태의 고상한 인격을 빌어 광계웅의 품덕을 칭송한 것이다. ○清光: 청명한 광채, 청아한 풍모, 성덕의 광휘, 청미한 풍채, 또한 제왕의 용안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漢書·晁錯傳》에 “지금의 관직을 맡고 있는 신하들 모두는 천하에서 선발되었지만, 폐하의 청명한 광채를 바라 볼 수 없으니, 비유하면, 五帝의 보좌신하와 같습니다(今執事之臣皆天下之選已, 然莫能望陛下清光, 譬之猶五帝之佐也.)”라고 하였다. ○獨映: 유독 비추다. 이백 <행운 스님께 드림(贈僧行融)>의 “아미산의 사회일 스님은, 유독 진자앙을 비취 드러냈네(峨眉史懷一, 獨映陳公出.)”에 용례가 있다. ○君: 광계웅을 말한다. 이 구에 대해, 郁賢皓는 “청미한 광채, 그대에게서 홀로 빛나네”라고 해석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國, 2011년, 474쪽). 이 구에 대해 詹福瑞 등은 “清光”으로 ‘홀로 자신만을 신하게 하네(獨善其身)’라는 취지로 해석하였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361쪽)
- 6) “恥將雞並食”句: 이 구와 관련된 내용이 《楚辭·卜居》의 “황곡과 함께 날아야 합니까, 닭이나 오리 따위와 먹이를 다투어야 합니까?(寧與黃鵠比翼乎, 將與雞鶩爭食乎?)”에 나온다.
- 7) “一擊九千仞, 相期凌紫氛.”二句: 이 두 구와 관련된 내용이 《文選》45 宋玉 <對楚王問>의 “봉황은 구천 길 위로 솟아올라, 구름 끝자락까지 이릅니다. 하늘을 지고, 아득한 하늘 위를 날아갑니다. 저 울타리 속에서 사는 메추리 따위와 어찌 천지의 높음을 헤아리겠는지요!(鳳凰上擊九千里, 絕雲霓, 負蒼天, 翱翔乎杳冥之上; 夫蕃籬之鷄, 豈能與之料天地之高哉!), 《漢書·賈誼傳》의 “봉황이 천길 높은 곳에서 날다가, 덕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서는 내려온다네(鳳凰翔於千仞兮, 覽德輝而下之.)” 및 劉楨 <贈從弟三首> 제3수의 “봉황이 남악에 모여 있네. 메마른 대숲에서 배회하네. 마음에 만족하지 못함 있어, 날개를 떨쳐 높은 하늘위로 올라가네. 어찌 늘 각고노력하지 않으리. 참새와 무리되는 것 부끄러워하네(鳳皇集南嶽, 徘徊孤竹根. 於心有不厭, 奮翅凌紫氛. 豈不常勤苦, 羞與黃雀群.)”에 나온다. ○紫氛: 하늘에 떠 있는 紫色의 雲氣로 하늘을 말한다.

하도다. 닭들과 더불어 먹이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길이 봉황과 무리되려 하네. 한 번에 구천 길을 날아올라, 자색 운기가 깔린 하늘까지 솟아오르자고 서로 약속한다.

### <解説>

이 시는 광계응의 고상한 품덕에 대하여 경모하고, 그와 함께 봉황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 가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 시의 창작 시기에 대하여, 혹자는 미상이라 했지만, 《李白詩文繫年》에서는 이 시를 開元 23년(735년)에 지은 것으로 보았고, “郭季鷹은 아마 이백이 并州를 떠돌 때 교제한 우인이다”<sup>8)</sup>고 했다. 詹鏐·安旗·詹福瑞·郁賢皓 등도 모두 개원 23년으로 보았다.

전체는 5언 율시로 총8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1, 2구에서는 河東人 郭泰로 광계응을 비유하여, 광태의 고상한 인격을 통해 광계응의 훌륭한 품덕을 칭송하였다. 제3, 4구에서는 광계응이 훌륭한 품덕(盛德)을 가졌으면서도 관직이 없이 세속을 초탈한 모습을 ‘淸光’으로 비유하였다. 제4구에 대해, 嚴評本의 批語에서는 “찬미하는 말로 세속의 티가 없다”<sup>9)</sup>고 했다. 제5, 6구에서 ‘雞’와 ‘鳳’을 대비시켰다. ‘雞’는 세속에서 ‘먹이’와 같은 ‘벼슬’을 다투는 것을, ‘鳳’은 속세를 초탈하여 높은 뜻을 지향하는 것을 비유한다. 광계응을 ‘鳳’으로 비유했다. 두 구에서 대비, 비유가 운용되었다. 제7, 8구에서는 광계응과 더불어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특히 이 두 구는 宋玉·賈誼·劉楨 등의 작품에 그 근거가 있다. 전고의 사용이 매우 적절하면서도 시 전체의 주지를 잘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작품은 광계응의 품덕을 칭양하고, 그와 더불어 삶의 이상, 가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었다. 작품에는 시인의 뜻을 직접 드러낸 경우도 있지만, 비유·대비·전고 등의 수사를 운용하여 은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8) “郭季鷹或亦太白遊并州時所交友人也.”, 詹鏐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년, 1407쪽 재인용.

9) “贊語無滓(疑作滓).”, 詹鏐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08쪽 재인용.

## 2.2 제36수 鄴中에서 高鳳 石門山에 들어가 은거하기를 권하는 만이 왕씨께 드림(鄴中贈王大勸入高鳳石門山幽居)<sup>10)</sup>

|                       |                   |
|-----------------------|-------------------|
| 一身竟無託,                | 이 한 몸 결국은 맡길 데 없어 |
| 遠與孤蓬征. <sup>11)</sup> | 외로운 쭉처럼 멀리멀리 떠도네. |
| 千里失所依,                | 천리 길 의지할 데 없어     |
| 復將落葉并. <sup>12)</sup> | 다시 낙엽과 함께 텅구네.    |
| 中途偶良朋, <sup>13)</sup> | 길 가다 좋은 벗 만나니     |

- 10) 鄴中: 지금의 河北省 邯鄲市와 臨漳縣 일대. 三國시기 魏나라의 수도. 《舊唐書·地理志》의 <河北道相州>에 “天寶 원년에 鄴郡으로 고쳤다(天寶元年, 改爲鄴郡.)”라고 하였다. ○王大: 항렬이 첫째인 왕씨. 당시 사람들은 王昌齡을 이처럼 일컬었다고 한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75쪽) 岑仲勉은 왕대가 왕창령이 아닐 수 있다고 하였지만, 安旗, 陳建平, 詹鍇 등은 왕창령으로 보고 있다.(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15쪽) ○高鳳: 後漢의 학자. 南陽郡 葉縣사람으로 西唐山에 은거하였다. 《後漢書》 권 83 <逸民列傳>에 고봉과 관련된 유명한 고사가 나온다. “고봉은 자가 文通으로, 南陽郡 葉縣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서생이 되었는데, 집에서는 농사일을 업으로 삼았지만, 오로지 공부에만 정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였다. 한번은 그의 처가 밭에 가면서 마당에 보리를 말려놓았다며 고봉에게 닭이 먹지 않도록 봐달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고봉은 죽간을 쥐고 경전을 읽는데 몰두하여, 빗물에 보리가 떠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처가 돌아와 그에게 질책하여 물으니, 고봉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그 후 드디어 유명한 학자가 되어, 西唐山에서 글을 가르쳤다.(高鳳, 字文通, 南陽葉人也. 少爲書生, 家以農畝爲業, 而專精誦讀, 晝夜不息. 妻常之田, 曝麥於庭, 令鳳護雞. 時天暴雨, 而鳳持竿誦經, 不覺潦水流麥. 妻還怪問, 鳳方悟之. 其後遂爲名儒, 乃教授業於西唐山中.)” 여기에 李賢이 “산은 지금의 唐州 湖陽縣의 西北쪽에 있다. 鄴道元이 《水經》을 주석하여 말하기를 ‘즉 고봉이 은거하였던 서당산이다’고 했다(山在今唐州湖陽縣西北. 鄴道元注《水經》云: 卽高鳳所隱之西唐山也.)”라고 주석하였다. ○石門山: 高鳳이 은거하던 산. 西唐山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河南省 葉縣에서 西南쪽으로 60리 되는 곳에 있다. 高鳳이 石門山에 은거하여 高鳳石門山이라고 하였다. ○幽居: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다.
- 11) 與: 같다. 《廣雅·釋言》에 “與는 如이다(與, 如也.)”라고 하였다. ○征: 가다. ○孤蓬: 쭉. 《文選》 권11 鮑照<蕪城賦>의 “쭉이 스스로 멀쳐 일어나다(孤蓬自振)”에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呂向이 “孤蓬은 풀이다. 뿌리가 없어 바람 따라 정처 없이 굴러다닌다(孤蓬, 草也. 無根而隨風飄轉者.)”고 주석하였다. 종종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나그네를 비유하는 데 쓰인다.
- 12) 將: ~와 ○并: 함께 ○落葉: 낙엽. 朱諫은 “落葉, 孤蓬은 모두 뿌리가 없는 사물이다. 그래서 바람 따라 굴러다니며,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落葉·孤蓬皆無根之物, 故隨風而飄, 無所定止.)”라고 주석하였다. 즉, 낙엽은 고봉과 마찬가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비유한다. 주간은 또한 낙엽은 여기에서 왕대를 비유한다고 하였다.(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11쪽)
- 13) 偶: 만나다. ○良朋: 좋은 친구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왕창령을 가리킨다.

|                       |                       |
|-----------------------|-----------------------|
| 問我將何行.                | 장차 어디로 가려냐고 나에게 묻네.   |
| 欲獻濟時策, <sup>14)</sup> | 세상 구제하는 대책 바치려 하나     |
| 此心誰見明? <sup>15)</sup> | 이 마음 그 누가 똑똑히 봐 주리오?  |
| 君王制六合, <sup>16)</sup> | 군왕이 온 천하를 제압하니        |
| 海塞無交兵. <sup>17)</sup> | 변방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네.      |
| 壯士伏草間,                | 장사들은 풀 사이에 엎드려 있고     |
| 沈憂亂縱橫. <sup>18)</sup> | 깊은 근심이 어지러이 왔다 갔다 하네. |
| 飄飄不得意, <sup>19)</sup> | 정처 없이 떠돌다 뜻 이루지 못하고   |
| 昨發南都城. <sup>20)</sup> | 어제 남도성을 떠났네.          |
| 紫燕櫪上嘶,                | 자연마는 말구유에서 히잉거리고      |
| 青萍匣中鳴. <sup>21)</sup> | 청평검은 칼집 속에서 우네.       |

- 
- 14) 濟時: 세상을 구제하다. 사회의 폐단을 바로잡다. 《國語·周語》의 “寬은 근본을 보호하는 것이고, 肅은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며, 宣은 교화를 베푸는 것이고, 惠는 백성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寬所以保本也, 肅所以濟時也, 宣所以教施也, 惠所以和民也.)”에 용례가 있다.
- 15) “此心誰見明”句: 이 마음 그 누가 똑똑히 봐 주리오? 이 구를 郁賢皓는 “이 마음 누가 날 위해 조정에 분명히 알려주리오?”로 번역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70쪽)
- 16) 制六合: 육합(역주: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을 제압하다. 賈誼<過秦論>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 육합을 제압하다(履至尊而制六合.)”에 용례가 있다.
- 17) “海塞無交兵”句: 변방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네. 曹植<贈丁儀王粲>의 “승상은 천자의 은택을 널리 떨쳐, 온 천하에 전쟁이 그쳤다(皇佐揚天惠, 四海無交兵.)”에 용례가 있다. ○海塞: 연해 및 변방. 詹福瑞 등은 발해만 쪽인 지금의 遼寧省 朝陽市 일대로 庫莫奚와 거란의 주거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362쪽.) ○無交兵: 전쟁이 없다. 당시에 庫莫奚와 거란이 평정되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말한다.
- 18) “壯士伏草間, 沈憂亂縱橫.”二句: 나라는 지금 비록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재능을 가진 장사들은 앞으로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하여 깊은 근심으로 지낸다는 말이요. ○沈憂: 깊은 근심. 《文選》 권30 陸機 <擬古詩十二首·擬行行重行行>의 “깊은 근심으로 내 마음이 아프네(沈憂萃我心.)”에 용례가 있는데, 張銑이 “沈은 深(깊다)이다(沈, 深也.)”라고 주석하였다.
- 19) 飄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 20) 南都: 지금 河南省 南陽市. 후한 때 光武帝가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지명이 南陽이었다. 후한의 수도는 洛陽이었는데, 광무제의 고향인 남양이 낙양의 남쪽에 있어 남도라고 불렸다. 唐 때는 鄧州南陽郡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옛날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76쪽) 《文選》 권4 張衡 <南都賦>에 李善이 주석을 달며 摯虞가 한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南陽郡은 宛 땅을 관할했는데, 도읍지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도라고 하였다.(南陽郡, 治宛, 在京之南, 故曰南都.)”

|                       |                         |
|-----------------------|-------------------------|
| 投軀寄天下, <sup>22)</sup> | 이 몸 던져 천하에 맡기고          |
| 長嘯尋豪英. <sup>23)</sup> | 휘파람 길게 내불며 영웅호걸 찾으리라.   |
| 恥學琅邪人,                | 낭야 사람 흉내 낸 걸 부끄러워 한 건   |
| 龍蟠事躬耕. <sup>24)</sup> | 파리 튼 용 되어 몸소 밭을 갈아서 이네. |

- 21) “紫燕撫上嘶，青萍匣中鳴。”二句：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탁되어 쓰이지 못함을 말한다. ○紫燕： 자연마. 준마의 한 종류. 《西京雜記》 권2에 “文帝가 대방에서 돌아올 때, 좋은 말 9필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천하의 준마였다. …… 일명 紫燕驪였다(文帝自代還，有良馬九匹，皆天下之駿馬也。…… 一名紫燕驪.)”라고 하였다. 《文選》 권14 顏延年 <赭白馬賦>의 “紫燕을 나란히 달리게 하려니(將使紫燕駢衡.)”에 용례가 있는데, 李善이 “《尸子》에서 이르기를 ‘내가 백성을 얻어 다스리는 것은 말에 紫燕과 蘭池라는 좋은 말이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劉邵는 <趙都賦>에서 ‘좋은 말은 飛兎, 奚斯, 常驪와 紫燕이다’라 했다(《尸子》曰：‘我得而民治，則馬有紫燕蘭池。劉邵<趙都賦>曰：‘良馬則飛兎奚斯，常驪紫燕.’)”라고 주석하였다. ○檣： 말구유 ○嘶： 말이 울다. ○青萍： 청평검. 명검의 한 종류. 《文選》 권40 陳琳<答東阿王箋>의 “青萍과 干將의 그릇됨을 아우르고 있다(秉青萍干將之器.)”에 용례가 있는데, 呂延濟가 “青萍은 검의 명칭이다(青萍，劍名也.)”라고 주석하였다. 또한 《抱朴子·博喻》의 “青萍과 豪曹는 칼날의 끝이 정교하다(青萍·豪曹，劍鋒之精絕也.)”에도 용례가 있는데, 蕭士贊이 “鮑照의 시에 ‘쌍검이 서로 헤어지려 할 때, 우선 칼 집 속에서 우네’라 했다(鮑照詩曰：‘雙劍將別離，先在匣中鳴.’)”라고 주석하였다.
- 22) 投軀： 몸을 던지다. 몸을 바치다. 鮑照 <出自薊北門行>의 “몸 던져 밝은 임금님께 보답하고, 몸이 죽으면 나라 위한 호국 신이 되려네(投軀報明主，身死爲國殤.)”에 용례가 있다. 朱諫은 이 구가 “몸을 천하에 바치고, 한쪽 구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言委身於天下，不滯於一隅也.)”라고 주석하였다.
- 23) 長嘯： 휘파람을 길게 내불다. ○豪英： 호걸과 영웅.
- 24) “恥學琅邪人，龍蟠事躬耕。”二句： 은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제갈량을 흠모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은 은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제하려고 함을 뜻한다. ○琅邪人： 제갈량을 말한다. 琅邪는 秦나라 및 漢나라 때의 郡의 이름인데, 지금의 山東省 諸城縣 일대이다. 琅邪에서 태어난 제갈량은 숙부를 따라 남양에서 농사지으며 숨어 살았다. ○龍蟠： 용이 서리다. 용이 파리를 틀다. 보통 영웅호걸이 뜻을 펴기 전 민간에 숨어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제갈량이 은거한 것을 말한다. 王琦는 “習鑿齒의 <通諸葛論>에 ‘제갈무후는 강남에서 용이 서린 듯 숨어 지내며 管仲과 樂毅를 받들고 좋아하였고, 한나라를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 했다(習鑿齒<通諸葛論>：‘諸葛武侯，龍蟠江南，託好管·樂，有匡漢之望.’)”라고 말하였다. ○躬耕： 몸소 밭을 갈다. 몸소 농사를 짓다. 《三國志·蜀書·諸葛亮傳》에 “제갈량은 자가 孔明이며, 琅邪郡 陽都縣 사람이다. …… 몸소 밭을 갈았으며, <梁父吟>을 좋아했다. 신장은 八尺이고, 매번 자신을 管仲·樂毅에 견주었지만, 당시에 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로지 博陵의 崔州平, 潁川의 徐元直만이 제갈량과 친하게 지내면서 진실로 그러하다고 여겼다(諸葛亮，字孔明，琅邪陽都人也。…… 躬耕隴畝，好爲<梁父吟>，身長八尺，每自比於管仲·樂毅，時人莫之許也，惟博陵崔州平·潁川徐元直與亮友善，謂爲信然.)”라고 하였다. 이 두 구는 이백이 제갈량이 농사를 지으며 은거를 하면서 세상일을 구제하는데 직접 나서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백의 다른 시문에 표현된 제갈량에 대한 평가와 상반된다고 한다.(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3), 서울: 學古房, 2015년, 131쪽 참고)

|                       |                        |
|-----------------------|------------------------|
| 富貴吾自取, <sup>25)</sup> | 부귀는 나 스스로 취해야 하고       |
| 建功及春榮. <sup>26)</sup> | 공은 젊을 때 이루어야 하네.       |
| 我願執爾手,                | 난 그대의 손을 잡길 원하고        |
| 爾方達我情. <sup>27)</sup> | 그댄 내 마음을 훨씬 아네.        |
| 相知同一己, <sup>28)</sup> | 서로를 알아 한 몸과 같으니        |
| 豈唯弟與兄!                | 어찌 유독 동생과 형만이 그러겠는가!   |
| 抱子弄白雲, <sup>29)</sup> | 그대와 벗하여 흰 구름과 노니다가     |
| 琴歌發清聲.                | 거문고 켜고 노래하니 맑은 소리 울리네. |
| 臨別意難盡,                | 헤어짐에 마음 다하기 어렵지만       |
| 各希存令名. <sup>30)</sup> | 각자 훌륭한 명성 남겼으면.        |

## &lt;校記&gt;

제목 중 ‘贈’이 咸本<sup>31)</sup> · 蕭本<sup>32)</sup> · 元刊二十六卷本<sup>33)</sup> · 郭本<sup>34)</sup> · 劉本<sup>35)</sup>의

- 25) “富貴吾自取”句: 부귀는 나 스스로 취해야 한다. 《史記·范雎蔡澤列傳》에 관련 전고가 있다. “채택은 당거가 자신을 놀리는 것을 알고, ‘부귀는 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모르는 것은 수명입니다. 그것을 들려주시시오’라고 말했다.(蔡澤知唐舉戲之, 乃曰‘富貴吾所自有, 吾所不知者壽也, 願聞之’)”
- 26) 春榮: 봄 꽃. 젊을 시절을 비유하고 있다. 《文選》 권20 潘岳 <金谷集作詩>의 “젊은 시절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나이 드니 진실로 늘 혼자이네(春榮誰不慕, 歲寒良獨希.)”에 용례가 있는데, 李善이 “春榮은 젊음을 비유하고, 歲寒은 늙음을 비유한다. 《周易陰符》에 ‘태공이 말하였다. 봄의 도는 낡는 데 있으니, 만물이 번성하네’라 했다(春榮, 喻少; 歲寒, 喻老. 《周易陰符》: ‘太公曰: 春道生, 萬物榮.’)”라고 주석하였다.
- 27) 達: 헤아리다. 알다.
- 28) 相知: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〇—己: 자기.
- 29) 抱: 껴다. 〇子: 보통 남성에게 존경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
- 30) 令名: 훌륭한 명성이나 명예. 《左傳》襄公 24年 “저는 듣건대 군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재화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명성이 없는 것을 근심한다고 하였습니 다. …… 모름지기 훌륭한 명성을 덕을 닦는 수레입니다(僑聞君子長國家者, 非無賄之患, 而無令名之難. …… 夫令名, 德之興也.)”에 용례가 있다. 그리고 《孝經·諫諍章》의 “신비에게 직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몸에서 훌륭한 명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에도 용례가 있다.
- 31)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 32)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 33)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 34)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제목에는 없다. 王本<sup>36)</sup>과 蕭本에는 ‘玉’으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틀린 것이라고 한다. 胡本<sup>37)</sup>과 全唐詩本<sup>38)</sup>에는 제목이 鄴中贈王大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鄴中贈王大勸入高鳳石門山幽居로 되어 있다(一作鄴中贈王大勸入高鳳石門山幽居)”라는 주가 있다. 劉本에는 “어떤 제목에는 鄴中贈王大로 되어 있다(一題作鄴中贈王大)”라는 주가 있다. 詹鏞은 ‘贈’이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라는 의견에 반대하여 咸本·蕭本·郭本の 제목에 ‘贈’이 없다 해도 ‘贈詩類’에 분류하여 넣은 것은 이 시가王大에게 증정한 시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王大가李白에게石門山에 입산하기를 권하고, 이백이 이에 이 시를 지어 그에게 증정한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詹福瑞 등은 시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제목에 ‘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361쪽)

제15구의 ‘上’이 全唐詩本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제23구의 ‘我願執爾手’가 송축본에는 ‘我願執手□’로 구의 끝 자가 결여되어 있어, 詹鏞이 咸本·蕭本·玉本<sup>39)</sup>·郭本·劉本에서 ‘爾手’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고쳤다.

#### <詳釋>

나의 신세가 힘들게 되었는데, 결국은 의탁할 데가 없어 바람 따라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외로운 쭉처럼 멀리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 집을 떠나 천리 길을 가고 가지만 의지할 데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낙엽신세 같은 왕창령을 만나 함께 낙엽처럼 뒹구며 떠돈다. 길 가는 도중 만난 나의 좋은 벗 왕창령은 나에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었다. 나는 이 어려운 세상을 구제할 대책을 가지고 있어 현명한 군왕에게 바치려고 하지만, 나의 이 마

35)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42卷.

36) 乾隆間(서기 1736-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37) 淸順治7年(서기 1650년) 胡震亨의 《合刻李杜詩通》 중 《李詩通》 21卷.

38)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39)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凡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음을 그 누가 똑똑히 보고 알아주겠는가?

지금은 군왕께서 하늘, 땅, 동서남북 모두를 제압하여 다스려 변방에는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 전쟁이 없다. 그러나 장사들은 풀 사이에 엎드려 있으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며 가슴 속이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어제 남도성을 떠나 여기로 왔다. 준마 자연마가 말구유에서 히잉거리며 울고, 명검 청평검이 칼집 속에서 우는 것은 나처럼 자신의 재능을 펴지 못해서이다.

나는 이 한 몸 던져 천하에 맡기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휘파람 길게 내뿜며 내 재능을 인정해 줄 영웅호걸 찾으러 다닐 것이다. 낭야 사람 제갈량을 흉내 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고 따리를 튼 용이 되어 은거하면서 몸소 밭을 갈며 살아서 이다. 부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취해야 하고, 공은 나이가 들면 노쇠해서 이루기 힘이 드니 젊은 시절에 이루어야 한다.

나는 지기인 그대의 손을 잡고 함께 친구의 정을 나누고 싶고, 그대는 내가 세상을 구제할 대책을 가지고 공을 세우길 원하는 마음을 훤히 알고 있다. 우리들은 서로를 잘 알아서 마치 두 몸인데도 한 몸과 같으니, 형제의 우애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그대와 벗하여 흰 구름과 노니다가 함께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 부르니 맑은 소리가 울러 나온다. 그대의 권유를 거절하고 헤어짐에 서로의 애뜻한 마음 다하기 어렵구나. 서로 각자 노력해서 이 세상에 훌륭한 명성을 남겼으면 좋겠다.

#### <解說>

이 시는 開元 28년(740년)에 왕창령을 만나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왕창령이 襄陽에서 南陽 북쪽을 지나다가 도중에 이백을 만났는데, 벼슬길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왕창령이 이백에게 고봉 석문산에 들어가 은거할 것을 권하였지만, 이백이 시를 지어 주며 시에서 자신은 아직 젊어 젊을 때

공을 세우고자 한다며 이 시로써 거절의 뜻을 나타내었다고 한다.<sup>40)</sup> 이 시의 창작동기에 대해 蕭士贊은 “이 시는 安祿山이 장차 반란하려고 할 때에 지은 것인가? 안록산이 반란하고자 할 때, 조정의 상하 모두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유독 당 현종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이태백 또한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감히 그러하지 못하였다. 아쉬운 대로 시로써 우국의 정을 나타내어 펼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1)</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李白詩文繫年》에서는 이를 반박하여 “소사육의 견해는 견강부회하다. 시 중의 ‘飄飄不得意, 昨發南都城.’에서 南都是 應陽 南陽을 가리킨다. 이태백의 <南都行>시로 증명할 수 있다”<sup>42)</sup>라며 이 시는 이백이 南陽大梁에서 북쪽으로 가서 鄴中에 도달하고 지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통해 《李白詩文繫年》에서 이 시의 창작시기 및 창작동기에 대한 소사육의 견해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구에서 제8구까지로 자신의 신세가 썩과 낙엽처럼 기댈 데가 없고, 세상을 구제할 대책이 있으나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제2단락은 제9구에서 제16구까지로 군왕의 통치가 잘 되어 변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은 뜻을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제3단락은 제17구에서 제22구까지로 천하에 영웅호걸을 찾아다니는 것은 제갈량처럼 은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젊은 시절에 공을 세우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제4단락은 제23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로 서로 뜻은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嚴羽는 자신이 평점한 《李太白詩集》에서 “投軀寄天下, 長嘯尋豪英.” 2구에 대해 “나가 없지만 또한 나를 잃지 않았다. 묘하다”<sup>43)</sup>라고 하였고, 또한 “抱子

40)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16쪽.

41) “按此詩其作於祿山將反之際乎? 當祿山欲反之時, 朝廷上下皆知其狀, 獨明皇不然之. 太白亦欲言而不敢. 聊因詩以發舒其憂國之情乎.”,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08-1409쪽 재인용.

42) “蕭氏之見失之穿鑿. 詩中稱‘飄飄不得意, 昨發南都城.’南都當指南陽, 太白有<南都行>一首可證.”,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09쪽 재인용.

43) “無我又不失我, 妙.”,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3), 南京, 鳳凰出版社, 2017년, 1164쪽 재인용.

弄白雲, 琴歌發清聲. 臨別意難盡, 各希存令名.” 4구에 대해 “전체가 웅장하고 마무리를 뛰어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한다”<sup>44)</sup>라고 찬사를 하고 있다.

### 2.3 제37수 華州의 王司士께 드림. 陝西에서(贈華州王司士 陝西)<sup>45)</sup>

淮水不絕波瀾高,<sup>46)</sup>      회수 끊임없이 흐르고 파도는 높는데  
 盛德未泯生英髦.<sup>47)</sup>      훌륭한 덕 끊이지 않았기에 준재 태어났네.  
 知君先負廟堂器,<sup>48)</sup>      알겠도다. 그대는 앞서 묘당의 기물 되었으니

- 44) “通篇雄豪而以逸終, 使人意消.”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3), 1164쪽 재인용.
- 45) 華州王司士: 성이 王氏인 華州지역 司士參軍事. 왕씨의 이름 및 사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다. ○華州: 唐代的 州 이름. 關內道에 속한다. 天寶원년에 華陰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원년에 다시 華州로 바뀌었다. 지금의 陝西省 渭南市 華州區이다. ○司士: 司士參軍事로, 州의 佐官. 工役을 관장한다. 《舊唐書卷四十四·志第二十四·職官三》에 “司功·司倉·司戶·司兵·司法·司士 六曹에는 參軍事가 각각 一人이 있는데, 從七品下에 해당한다(司功·司倉·司戶·司兵·司法·司士 六曹參軍事各一人, 並從七品下.)”라고 하였다.
- 46) “淮水不絕波瀾高”句: 이 구는 王導의 전고를 사용하고 있다. 《晉書卷六十五·列傳第三十五》에 “당초에 王導가 淮水を 건너며, 郭璞에게 점을 치도록 했는데, 점괘가 나오자, 광박이 말하길 ‘길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오직 淮水가 끊어져야만, 王氏가문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 후 자손이 번성하였으니, 결국에는 광박의 말처럼 되었다(初, 導渡淮, 使郭璞筮之, 卦成, 璞曰: ‘吉, 無不利. 淮水絕, 王氏滅.’ 其後子孫繁衍, 竟如璞言.)”라고 하였다. ○淮水: 淮河. 水源이 河南의 桐柏山에 있고, 동으로 河南省·安徽省으로 흘러, 江蘇省에 이르러 洪澤湖로 들어간다. ○波瀾高: 郁賢皓는 “왕씨 후예가 흥성함을 비유, 여기서는 王司士가 가업을 계승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477쪽). ○波瀾: 물결. 파도.
- 47) “盛德未泯生英髦”句: 王司士가 王導의 뒤에 나왔지만, ‘盛德(훌륭한 덕행)’이 서로 이어져서 ‘英髦(뛰어난 젊은이)’ 즉 王司士가 나왔음을 말한다. ○盛德未泯: 훌륭한 덕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南朝 宋) 傅亮 《爲宋公修張良廟敎》의 “훌륭한 덕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 뜻이 제사를 기록한 전적에 있다(夫盛德未泯, 義存祀典.)”에 용례가 있다. ○英髦: 뛰어난 사람. 명망 있는 훌륭한 사람. 준재, 髦俊, 髦髦 등과 같은 뜻. 《詩經·大雅·思齊》의 “문왕이 싫어하심 없이, 훌륭한 인재들 등용하셨다네(古之人無斃, 髦髦斯斯.)”에 용례가 있다. 朱熹는 ‘髦’를 ‘名’으로 ‘髦’를 ‘俊’으로 풀이하였다. 郁賢皓는 “才智가 걸출한 사람”이라 하였다(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477쪽). ‘英髦’는 이 시에서 王司士를 가리킨다.
- 48) “廟堂器”: 조정의 중책을 맡을 만한 才器를 갖춘 사람을 비유. 詹鏐는 “묘당에 진설한 禮器. 鼎彝와 같은 부류로 왕좌의 제주”(詹鏐, 《李太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17쪽) 라고 했다. 鼎彝는 宗廟의 술으로,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사적을 여기에 새겨 그 공적을 기렸다. 廊廟器도 같은 뜻으로, 《三國志·蜀志·許靖傳論》의 “許靖(역주: 147-222년, 자는

今日還須贈寶刀.49) 지금은 보검 주어야 함을.

<校記>

제목에서 咸本·蕭本·郭本·劉本에는 모두 下注 즉 ‘陝西’ 두 글자가 없다. 제1구의 ‘波’가 咸本·蕭本·玉本·郭本·朱本<sup>50)</sup>·胡本에는 모두 ‘濤’로 되어 있다.

<詳釋>

회수의 긴 강물 끊임없이 흐르고 파도는 치솟아 오른다. 왕씨 가문의 훌륭한 덕은 끊이지 않았기에 그대와 같은 준걸 태어났도다.

알겠도다, 그대 앞서는 큰 才器를 가지고 조정의 중책을 맡았으니, 지금은 또한 그대에게 보검을 주어, 당시의 王祥·王覽처럼 대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文休. 豫州 汝南平輿 사람. 삼국시대 蜀나라의 정치가)이 일찍이 명예가 있었다. …… 비록 행동거지가 모두 다 사리에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蔣濟(역주: 188-249년, 자는 子通. 楚 땅 平阿 사람. 삼국시대 魏나라의 名臣. 曹操·曹丕·曹睿·曹芳 4대에 걸쳐 역임)는 ‘대체로 중책을 맡을만한 才器가 있다’고 여겼다(許靖夙有名譽 …… 雖行事舉動, 未悉允當, 蔣濟以爲‘大較廊廟器’也.)’에 용례가 있다.

49) “今日還須贈寶刀”句: 이 시구는 王覽의 佩刀의 전고를 들어서 王司土가 王祥和 王覽처럼 여러 대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번성하기를 바랐다. ○贈寶刀: 《晉書·王覽傳》에 이에 대한 전고가 있다. “당초에 呂虔(역주: 생졸미상. 자는 子恪. 任城國 [지금의 山東省 濟寧市 동남쪽] 사람. 삼국시대 위나라 장군)이 佩刀를 가지고 있었는데, 匠人이 그것을 보더니,三公의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칼을 잘 자격을 가진다고 여겼다. 呂虔은 칼을 王祥에게 주면서 말하길, ‘만약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칼을 차면 화가 될 수 있다. 그대는 재상의 도량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에게 준다.’ 王祥이 고사하였지만, 강권하기에 받았다. 王祥이 죽음에 이르러 칼을 동생 王覽에게 주면서 말하길, ‘너의 자손은 반드시 흥성하리니, 이 칼을 잘만한 자격이 있다’고 했다. 과연, 王覽의 후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賢才가 많았고, 東晉에서 흥성했다.(初, 呂虔有佩刀, 王相之, 以爲必登三公, 可服此刀. 虔謂祥曰: ‘苟非其人, 刀或爲害, 卿有公輔之量, 故以相與.’ 祥固辭, 強之乃受. 祥臨薨, 以刀授覽, 曰: ‘汝後必興, 足稱此刀.’ 覽後奕世多賢才, 興於江左矣.)” 東晉의 승상 王導와 대장군 王敦은 모두 王覽의 손자이다. 王覽에게는 또한 유명한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서예가 王羲之이다.

50)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謙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 &lt;解説&gt;

이 시는 司士관직에 있는 王氏에게 주는 시이다. 이 시의 창작시기에 대하여, 安旗는 이 시를 開元19년에 편차하고 “봄에 長安을 나와서 동쪽으로 가던 중에 華州를 지나다가 지었다”<sup>51)</sup>고 했고, 郁賢皓는 “개원 연간 처음으로 장안에 들어와 華州를 유람했을 때 지은 것 같다”<sup>52)</sup>고 했다. 작품 분위기로 보면, 시인이 장안에 처음 들어올 때의 희망, 기대보다는 장안을 떠나, 여러 곳을 유람할 때의 정조가 느껴진다.

이 작품은 王司士를 ‘英擘’, ‘廟堂器’로 칭송하면서 그가 여러 대에 걸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앞 두 구는 王導의 전고를 들어, 왕사사가 王導의 뒤에 나왔지만, 왕씨의 성덕을 이어서 준재가 되었음을 말하였다. 뒤 두 구는 왕사사를 묘당의 鼎彝와 같은 부류로 비유하고, 그를 왕좌의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寶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인은 ‘廟堂器’, ‘贈寶刀’에 왕사사의 才器를 찬미하고, 그가 대대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탁하였다. 작품전체는 王姓의 전고를 사용하여, 함축적이면서도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2.4 제38수 조정의 부름을 받은 노씨 형제께 드림(贈盧徵君昆弟)<sup>53)</sup>

明主訪賢逸,  
雲泉今已空.<sup>54)</sup>

밝은 임금님 어진 은자 찾으시니  
은자 살던 운천 지금은 이미 텅하구나.

51)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18쪽, 재인용.

52)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478쪽.

53) “盧徵君昆弟”句: 盧徵君 형제.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徵君: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을 徵士라 하였으며, 이러한 사람을 존칭하여 徵君이라 불렀다. 蕭士贊은 “盧徵君의 이름은 鴻, 자는 顯然로 생각된다. 《唐書》에 傳이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按盧徵君名鴻, 字顯然. 《唐書》有傳云云.)”라고 주석하였다. 징군과 관련된 전고가 《後漢書》 권53 <周黃徐姜申屠列傳>에 나온다. “黃憲이 처음으로 孝廉으로 선발되었고, 또한 三公의 府에서 불렀다. 벗이 그에게 벼슬할 것을 권하였고, 황헌 또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京師에 잠시 갔다가 돌아왔다. 끝내는 아무것도 이룬 바 없이 나이 48세에 죽었다.

二盧竟不起,<sup>55)</sup> 두 노씨 형제 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  
 萬乘高其風,<sup>56)</sup> 임금님은 그 기풍을 높이 샀네.  
 河上喜相得,<sup>57)</sup> 신선 하상공을 만난 듯 기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徵君이라고 불렀다.((黃)憲初舉孝廉, 又辟公府, 友人勸其仕, 憲亦不拒之, 暫到京師而還, 竟無所就. 年四十八終, 天下號曰徵君.) 王琦는 “후세의 徵君이라는 이름은 여기로부터 비롯된다. 소사운이 盧鴻이라고 주를 달았는데, 《당서》 및 다른 서적에서 실은 노홍의 사적을 고찰해보니, 모두 그가 동생과 함께 은거했다는 말이 없으니, 아마도 여기의 노씨는 또 다른 사람인 듯하다(後世徵君名始此. 蕭注以盧徵君即是盧鴻, 考《唐書》及他書所載鴻事, 都不言其有弟同隱, 恐此盧又是一人.)”라고 주석하였다. 郁賢皓 역시 왕기의 설이 옳다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78쪽). ○昆弟: 형과 동생. 가까운 친척뿐 아니라 먼 친척도 포함하여 이른다.

- 54) “明主訪賢逸, 雲泉今已空.”二句: 밝은 임금님 어진 은자 찾으시니, 은자 살던 운천 지금은 이미 텅하구나. 王維《王右丞集》 권5 <送別> 중 “태평한 시대엔 은자가 없고, 인재들 모두 조정으로 돌아오네(聖代無隱者, 英靈盡來歸.)가 이 두 구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朱謙은 “賢逸은 현명하나 은거한 자이다. 雲泉은 은자가 거하는 곳이다. 空은 사람이 없다(賢逸, 賢而隱者也. 雲泉, 隱者之所居也. 空者, 無人也.)”라고 주석하였다.
- 55) 不起: 관직에 나아가지 않다. 《晉書·謝安傳》의 “처음에 司徒府에서 부르고, 佐著作郎으로 제수하였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절하였다. …… 다시 尙書郎과 琅邪王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말지 않았다(初辟司徒府, 除佐著作郎, 并以疾辭. …… 復除尙書郎·琅邪王友, 并不起.)”에 용례가 있다.
- 56) 萬乘: 1만 대의 兵車를 뜻하는 말로 천자의 병거가 만 대였으므로 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천자 즉, 임금을 나타낸다. ○高: 높이 사다. 높이 평가하다.
- 57) 河上: 河上公. 前漢 때 사람. 성명은 알 수 없다. 漢文帝 때 강가에 움막을 짓고 살아 사람들이 하상공이라 불렀다고 한다. 河上丈人, 河上真人이라고도 한다. 《太平廣記》 권10에서 《神仙傳》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상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상공은 그 성과 자를 알지 못한다. 한문제 때 하상공은 황하 가에 풀을 엮어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한문제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아주 좋아하였다. …… 몇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사람 중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모두가 하상공이 《도덕경》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칭송하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모르는 것을 물었다. 하상공이 말했다. ‘도와 덕은 존귀한 것인데, 사람을 보내 물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문제는 하상공의 움막을 찾아가서 몸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말했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온 나라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소.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하나를 차지하고 있소. 그대는 비록 득도했다고 해도 짐의 백성이거늘, 자신을 굽히지 않고 어찌 이리도 고고하게 구시오?’ 하상공은 곧장 손뼉을 치면서 앉은 채로 솟구쳐 유투히 허공중에 있었는데, 땅과의 거리가 몇 척이나 되었다. 아래를 보았다가 위를 보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위로는 하늘에 닿아 있지 않고, 가운데로는 사람과 섞여 있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닿아 있지 않으니, 어찌 왕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한문제는 수레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짐은 부덕하지만, 외람되게도 선조의 위업을 잇고 있소. 재주는 미약하고 책임은 막중해,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소. 비록 세상을 다스리며 도를 숭상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매하여 모르는 것이 많소. 오로지 道君께서 가르쳐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요.’ 이에 하상공은 《素書》 2권을 한문제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 《도덕경》을 보고 알지 못한 것을 모두 알게

壺中趣每同.<sup>58)</sup>

호리병 속 흥취는 언제나 한결같네.

滄洲卽此地.<sup>59)</sup>

은자 머물던 창주가 바로 이곳이니

觀化遊無窮.<sup>60)</sup>

조화 살피며 무궁의 문으로 가네.

될 것이니,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도덕경>에 주를 단 것이 1,700 여년이 되었고, 그 동안 세 사람에게 전수해주었는데, 그대를 포함하면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상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 버렸다.(河上公者, 莫知其姓名. 漢文帝時, 公結草爲庵於河之濱. 帝讀《老子經》, 頗好之. …… 有所不解數事, 時人莫能道之. 聞時皆稱河上公解《老子》經義旨, 乃使齋所不決之事以問. 公曰: '道尊德貴, 非可遙問也.' 帝即幸其庵躬問之. 帝曰: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域中四大, 王居其一. 子雖有道, 猶朕民也. 不能自屈, 何乃高乎?' 公即撫掌坐躍, 冉冉在虛空中, 去地數丈, 俯仰而答曰: '余上不至天, 中不累人, 下不居地, 何民臣之有?' 帝乃下車稽首曰: '朕以不德, 忝承先業, 才小任大, 憂於不堪. 雖治世事而敬道直以暗昧, 多所不了, 唯願道君有以教之.' 公乃授素書二卷與帝, 曰: '熟研之, 此經所疑皆了, 不事多言也. 余注此經以來, 一千七百餘年, 凡傳三人, 連子四矣. 勿以示非其人.' 言畢, 失去所在.)" 여기에서는 노씨 형제를 하상공에 비유하고 있다.

- 58) “壺中趣每同”句: 호리병 속은仙境, 즉 신선세계를 뜻하는데, 이러한 신선세계를 좋아하는 것이 서로 같음을 말한다. 壺中趣는 後漢 때 方士 費長房과 관련된 전고에서 나온 말이다. 그 전고는 <後漢書> 권83 <費長房傳>에 나온다. “費長房은 汝南 출신으로, 시장 관리 인으로 일하고 있을 때, 시장에서 약을 파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가게 앞에 향아리 하나를 걸어 두었다가, 시장이 파하면 열린 그 향아리 속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시장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비장방은 누각 위에서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노인이 있던 곳으로 가서 재배하며, 술과 맷반 고기를 바쳤다. 그러자 노인은 비장방이 자신이 신선이라고 생각해 찾아온 걸로 알고, 비장방에게 ‘그대는 내일 다시 오시오’라고 말했다. 비장방이 다음날 다시 노인을 찾아가니, 노인은 그와 함께 향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향아리 속에는 옥으로 만든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저택이 솟아 있었고, 그 저택 안에는 술과 맷반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노인과 더불어 다 먹고 나오자 노인은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나중에 노인은 누각에 와서 비장방에게 ‘나는 신선인데 잘못을 저질러 벌로 여기에 와 있었네. 이제 그 벌이 다하여 떠나게 되었는데, 그대가 어찌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누각 아래 술을 조금 가져와 두었는데, 그대와 더불어 마시고 작별하러네. 라고 말하였다(費長房者, 汝南人也, 曾爲市掾. 市中有老翁賣藥, 懸一壺於肆頭, 及市罷, 輒跳入壺中. 市人莫之見, 唯長房於樓上睹之, 異焉, 因往, 再拜, 奉酒脯. 翁知長房之意其神也, 謂之曰: ‘子明日可更來.’ 長房旦日復詣翁, 翁乃俱入壺中. 唯見玉堂嚴麗, 旨酒甘肴盈衍其中, 共飲畢而出. 翁約不聽與人言之. 後乃就樓上候長房曰: ‘我神仙之人, 以過見責, 今事畢當去, 子寧能相隨乎? 樓下有少酒, 與卿爲別.’)”

- 59) 滄洲: 김푸른 물가. 옛날 은자가 거처하던 곳에 대한 명칭. 謝朓 <之宣城出新林浦向板橋>의 “녹봉을 받은 마음 즐거울 뿐 아니라, 또한 창주에 사는 정취에도 들어맞네(既懽懷祿情, 復協滄洲趣.)”에 용례가 있다.

- 60) “觀化遊無窮”句: 자연의 조화를 살피며 무궁의 문으로 들어가 신선세계에서 살고자 함을 말한다. ○觀化: 자연의 조화 혹은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다. <莊子·至樂>에 “제가 지금 그대와 함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다가, 지금 이러한 변화가 저에게 미쳤으니, 제가 어찌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吾與子觀化而化及我, 我又何惡焉?)”에 용례가 있는데, 成玄英이 “나는 그대와 함께 노닐며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다가 그 변화가 저에게 미쳤습니다(我與子

木落海水清,

나뭇잎 떨어지고 바닷물 맑으니

鼇背觀方蓬.<sup>61)</sup>

자라 등 위 방장산과 봉래산을 볼 수 있네.

同遊, 觀於變化, 化而及我.)”라고 疏를 달았다. 《文選》 陸機〈漢高祖功臣頌〉의 “사물의 신묘함을 궁구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다(窮神觀化.)”에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劉良이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言其觀察事變.)”라고 주석하였다. ○無窮: 아득하고 끝이 없다. 여기에서는 도가에서 말하는 無窮之門(지극한 도에 이르는 문)을 말한다. 《莊子·在宥》에 나오는 옛날 신선중의 한명인 廣成子의 말에 관련 전고가 있다. 《莊子·在宥》에 의하면 광성자는 空同山(혹은 崆峒山으로 표기)에 기거했는데, 黃帝가 방문하여 몸을 다스리는 법의 요체를 물었을 때, 광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만물은 무궁한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끝이 있다고 생각하오. 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나의 도를 체득한 사람은 위로는 황제가 되고 아래로는 왕이 될 것이오, 나의 도를 잃은 사람은 위로는 빛을 보다가 아래로는 흙이 될 것이오. 지금 모든 만물은 모두 흙에서 생겨나서 흙으로 돌아가오. 그러므로 나는 장차 당신을 떠나서 무궁의 문 안으로 들어가 끝없는 들판에 노닐 것이오.(彼其物無窮, 而人皆以爲有終. 彼其物無測, 而人皆以爲有極. 得吾道者, 上爲皇而下爲王. 失吾道者, 上見光而下爲土. 今夫百昌皆生於土而反於土, 故余將去女, 入無窮之門, 以遊無極之野.)” 陳子昂 <登澤州城北樓宴>의 “평생 유람에 지친 사람으로, 자연의 조화를 보니 영원하고 무궁하였네(平生倦遊者, 觀化久無窮.)”에 용례가 있다. 詹福瑞 등은 이 구를 “여기에서 만물의 변화를 살피고, 유유자적하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네”로 번역하고 있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364쪽.)

- 61) “鼇背觀方蓬”句: 자라 등 위 방장산과 봉래산을 볼 수 있네. 이와 관련된 전고가 《列子·湯問》에 나온다. “渤海의 동쪽에서 몇 억만 리가 되는데 알 수 없는 곳에 커다란 계곡이 있습니다. 실로 믿이 보이지 않는 계곡으로 더 이상의 믿이 없어 歸墟라고 합니다. 八紘과 九野의 물이 은하수로 흐르는데 그 흐름이 멈추지 않으며 증감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섯 산이 있는데 岱輿, 員嶠, 方壺, 瀛洲, 蓬萊라고 합니다. ……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신선과 성인들로 하루 낮과 하루 저녁을 날아 서로 왕래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산의 밑은 큰 대나무에 연결되어 있어 늘 조수와 파도에 따라 상하로 왔다 갔다 하여 잠시도 우뚝 솟아나 있지 않습니다. 신선과 성인들이 이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상제께 호소하였습니다. 상제가 다섯 산이 서쪽 끝으로 흘러가서 신선과 성인들이 살 곳을 잃을까 걱정되어, 이에 禺疆에게 명하여 거대한 자라 15마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그것을 떠받치게 하였습니다. 서로 삼교대로 돌아 흐르기를 세 번 하여, 6만년에 한 차례씩 바꾸게 하였습니다. 다섯 산은 처음에는 우뚝 솟아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龍伯의 나라에 살던 거인이 발을 들어 몇 걸음을 걷지 않았는데도 다섯 산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낚시질 한 번으로 거대한 자라 여섯 마리를 연이어 잡아 모두 메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 뼈를 구워서 집을 쳤습니다. 그 때문에 岱輿와 員嶠 두 산은 북극으로 흘러가 대해에 가라앉고, 신선과 성인들이 흩어져 옮긴 자가 많아 억을 헤아렸습니다.(渤海之東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實惟無底之谷, 其下無底, 名曰歸墟. 八紘九野之水, 天漢之流, 莫不注之, 而無增無減焉. 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所居之人皆仙聖之種, 一日一夕飛相往來者, 不可數焉, 而五山之根無所連著, 常隨潮汐上下往還, 不得暫時焉. 仙聖毒之, 訴之於帝. 帝恐流於西極, 失群仙聖之居, 乃命禺疆使巨鼇十五舉首而戴之. 迭爲三番, 六萬歲一交焉. 五山始峙而不動, 而龍伯之國有大人, 舉足不盈數步而暨五山之所, 一釣而連六鼇, 合負而趣歸其國, 灼其骨以數焉, 於是岱輿·員嶠二山流於北極, 沉於大海, 仙聖之播遷者巨億計.)” ○方蓬: 삼신상 중 方壺(方丈)산과 蓬萊산.

與君弄倒影, 62)

그대들과 더불어 높은 하늘로 올라

攜手凌星虹. 63)

손잡고 별과 무지개 넘어가리.

## &lt;校記&gt;

제9구의 ‘木’이 威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胡本·全唐詩本에는 ‘水’로 되어 있다.

## &lt;詳釋&gt;

태평한 시대에 밝은 임금님께서 현명하나 은거하고 있던 은자들을 찾아서 조정으로 부르니, 은자가 살고 있던 운천 땅엔 은자들이 지금은 모두 떠나가 행하다. 徵君인 두 노씨 형제들은 임금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아 임금님께서서는 노씨 형제의 고상한 기풍을 높게 평가하였다.

나 이백은 이 두 노씨 형제를 만난 것이 한나라 때 은자인 河上公을 만난듯 하여 기쁘고, 우리 모두는 신선세계를 추구하는 취향이 언제나 한결같다. 은자가 머물며 수도하던 창주가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으니, 이곳은 자연의 조화를 살피고 무궁의 문에 이를 수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가을이 되어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맑으니 멀리서 거대한 자라 등 위에 있는 방장산과 봉래산을 바라볼 수 있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높은 하늘에 있는 신선세계로

62) “與君弄倒影”句: 그대들과 더불어 높은 하늘로 올라. 하늘 위 신선세계로 감을 말한다(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3), 서울, 學古房, 2015년, 136쪽 참고). ○弄倒影: 승천하다. ○倒影: 하늘의 가장 높은 곳. 倒景으로도 쓴다. 해와 달의 빛이 거꾸로 아래로부터 위로 비추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해와 달을 보면 그것의 그림자가 모두 거꾸로이다. 그래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倒影이라고 하였다. 司馬相如 <大人賦>의 “번개로 거꾸로 선 그림자를 뚫고(貫列缺之倒景兮.)”에 용례가 있는데, 張揖이 “<陵陽子明經>에서 ‘倒景은 氣가 땅에서 4천리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의 그림자가 모두 아래에 거꾸로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陵陽子明經>曰: ‘倒景, 氣去地四千里, 其景皆倒在下也. )’라고 주석하였다. 如淳은 “해와 달 위에서 거꾸로 아래를 비추면 그 그림자가 거꾸로 된다(在日月之上, 反從下照, 故其景倒.)”라고 하였다. 弄倒影을 이영주 등은 ‘아래에 있는 태양을 희롱하며’(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3), 134쪽)로 번역하였는데, 연구자는 郁賢皓의 번역(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79쪽) 및 詹福瑞 등의 번역(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364쪽)을 따랐다.

63) 星虹: 뭇별과 무지개.

올라가 그대들과 손잡고 못 별과 무지개를 넘어가련다.

<解説>

이 시는 두 노씨 형제의 고상한 기풍을 양모하고 그들이 은거하면서 신선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동경하며, 그들과 함께 노니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安旗는 翰林待詔(翰林供奉이라고도 함)후기에 지은 것 같다고 하였으며,<sup>64)</sup> 《李白詩文繫年》에서는 天寶初 한림에 있을 때 지은 것 같다고 하였고,<sup>65)</sup> 郁賢皓는 창작연대가 미상이지만 누군가는 천보 초 한림공봉 때 작이라고 한다고 하였다.<sup>66)</sup> 許嘉甫는 위의 견해와는 달리 開元 19년에 지었다고 하고 있는데,<sup>67)</sup> 詹鏞은 許嘉甫의 주장에 대해 《唐書·盧鴻傳》에 노홍의 생몰년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노홍이 조정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開元 6년 이전이며, 許嘉甫가 개원 19년에 노홍이 또 조정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許嘉甫의 주장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였다.<sup>68)</sup> 연구자는 위의 견해들과는 달리 이백이 이 시 속에서 은거하는 두 노씨 형제를 만나고 그들의 고상한 기풍을 양모한 점에 비추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혹은 은거하며 단약을 만들며 신선세계를 동경하였던 한림봉공 이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는 2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임금님이 어진 은자를 찾아서 많은 은자들이 은거하던 곳을 떠나 조정으로 갔지만, 오직 두 노씨 형제는 가지 않아 임금님이 그들의 기풍을 높이 평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2단락은 제5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로 두 노씨 형제를 만난 것이 신

64) “이 시는 …… 또한 翰林待詔 후기에 지은 것 같다.(此詩 ……，亦似待詔翰林後期之作.)”，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421쪽 재인용.

65) “시에서 말한 ‘明主訪賢逸，雲泉今已空。二虛竟不起，萬乘高其風.’의 어기로 볼 때 대개 천보 초 한림에 있을 때 지은 것 같다.(詩云‘明主訪賢逸，雲泉今已空。二虛竟不起，萬乘高其風.’玩其語氣，頗似天寶初在翰林時作.)”，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418쪽 재인용.

66) 郁賢皓 注譯，《新譯李白詩全集》(上)，479쪽.

67) 許嘉甫，〈李白交遊考錄三題一·李白與盧鴻〉，《中國李白研究》，1990년 下，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422쪽 재인용.

68) 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422쪽.

선인 河上公을 만난 듯한 기쁨을 나타내고, 두 노씨 형제와 더불어 신선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신선세계에서 노닐고 싶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결론

<贈郭季鷹>은 객계응의 고상한 품덕을 경모하고, 그와 봉황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고자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작품에는 대비, 비유, 전고의 수법을 운용하여 시인의 뜻을 때로는 돌출시키고 때로는 암유적, 함축적으로 드러내었다. <鄴中贈王大勸入高鳳石門山幽居>는 왕창령을 만나고 지은 것이다. 창작동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작품내용으로 볼 때, 자신의 뜻을 펼쳐,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한탄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작품 가운데 “紫燕櫪上嘶, 青萍匣中鳴.” 두 구는 시인의 감정을 암유한다. 작품은 이상과 현실이 교직되어 때로는 희망, 기대가 한탄, 낙담과 교차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 <贈華州王司士>는 ‘英髻’, ‘廟堂器’로 王司士의 才器를 칭송하고, ‘贈寶刀’로 그가 여러 대에 걸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특히 王姓의 전고를 사용하여, 시인의 뜻을 함축적이면서도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贈盧徵君昆弟>는 두 노씨 형제의 고상한 기풍을 앙모하고 그들이 은거하면서 신선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동경하며, 그들과 함께 노니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에는 隱士에 대한 동경, 遊仙에 대한 갈망의 감정이 담겨있다.

이상의 贈詩를 통해, 시인은 상대의 품덕과 재기를 칭송하면서도 자신의 功成身退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또한 隱逸과 遊仙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贈詩는 이백과 교류했던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參考文獻 >

- 王琦 輯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瞿蛻園·朱金城 校主,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韓嬰 著, 許維通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 郁賢皓 主編,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詹福端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陳貽焮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南京: 鳳凰出版社, 2017.
-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서울: 學古房, 2015.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bai's < Presented Poems > (9)  
- From The 35th Poem to The 38th Poem

Cho, Deukchang · Cho, Sungchun

This paper translates and reviews four poems written by Li Bai(李白). The first poem consists of two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praises the noble grace of Guo Jiying(郭季鷹). The second paragraph expresses Li Bai's wish to become a phoenix and spread his wings with Guo Jiying and fly high. The second poem consists of four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conveys Li Bai's

lament on his own situation where he has nowhere to go like mugwort and fallen leaves, and he knows how to save the world, but no one recognizes him for it. In the second paragraph, he laments that while the king rules the country well and there is no war at the border, he hasn't gotten ahead in the world. In the third paragraph, he says the reason he visits to meet many competent people is not to retreat like Zhu Geliang(諸葛亮) but to achieve his achievements while still young. The fourth paragraph deals with his wishes. He understands that he and other competent talents know each other's ambitions well, and even if they break up, he wants to be able to leave their name for the next generation. The third poem can be divided into two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praises the great virtue of Secretary Wang(王司士). In the second paragraph, he says Secretary Wang is talented and wants him to take office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fourth poem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paragraphs. Here's what the first paragraph says: The king called wise hermits, but the two brothers insisted on remaining hermits. So the king appreciated their ethos. The second paragraph expresses his joy to have met the two brothers, and his desire to live like the Taoist hermits with the two brothers.

Key words: Translation, Annotation, Li Bai(李白), Presented Poems, Guo Jiying(郭季鷹), Secretary Wang(王司士)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20. 07. 30 | 2020. 08. 12<br>-08. 25 | 2020. 08. 23 | 2020. 09. 01 | 2020. 09. 30 |

